

# “사람은 神의 후손 아닌 야수의 아들이다”

## 동물행동학 및 사회생물학의 명저 속속 번역출간되며 새로운 인간관 제공

지난 40여년 동안 서양에서 급속히 발전한 신생학문인 동물행동학의 명저들이 근래들어 우리나라에서 속속 번역출간되고 있다. 동물들의 행동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인 동물행동학은 낱벌의 사회성 연구 등으로 197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수상했던 로렌츠, 틴버겐 등에 의해 탄생돼, 인간사회를 새롭게 해석·조명하는 데 획기적인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 생물학의 한 분과이다. 이와 함께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사회행동의 유전적 기초를 연구하는 학문”인 사회생물학을 창시한 윌슨의 「사회생물학」도 번역돼 바야흐로 진화론의 현단계를 보여준다.

로렌츠의 「솔로몬왕의 반지」(김천혜 역, 문장), 「공격성에 관하여」(송준만 역, 이화여대 출판부), 「기아위」(이신재 역, 호암출판사), 니코 틴버겐의 「동물의 사회행동」(박시룡 역, 전파과학사), 퀴젠의 「동물의 행동」(이병훈 역, 전파과학사),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이용철 역, 동아출판사), 데스먼드 모리스의 「털없는 원숭이」(김석희 역, 정신세계사), 구리모토 신이치의 「팬티를 입은 원숭이」(김광현 역, 당그레), 윌슨의 「사회생물학」(이병훈·박시룡 역, 민음사), 하인드의 「동물행동학」(장현갑 역, 민음사) 등이 그들이다.

### 우리나라 전공자 두셋뿐인 신생분야

이 책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의 동물 다큐멘터리를 통해 20세기말적 인간론과 사회론을 개진, 전지적 작가 시점의 ‘동물우화’인 「파브르 곤충기」나 「시튼 동물기」 등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연구 대상을 잡아서 죽이기만 하”거나 “책상 앞에 앉아 논리적 추론만 일삼”던 1930년대까지의 동물 연구에서 벗어나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동물행동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행동학을 생물학의 인정받는 한 분야로 만들고 정상개도에 오르게 한 선두주자는 로렌츠와 틴버겐. 로렌츠는 「솔로몬왕의 반지」(1949)를 통해 종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들이 생得的인 것임을 주장했다. 즉 “동물들이 특정한 자극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시행착오·학습·모방·문화적 전수를 통해 획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과정에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과정에서 유전인자에 입력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생득적인 행동과

신생학문인 동물행동학·

사회생물학의 명저들이 속속

번역출간되고 있다.

「시튼 동물기」의 재미와

철학적 인간학의 진지함이 결합돼

넓은 독자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인간은 신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야수의 아들이라는 과학적인 진단은

읽는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학습적인 행동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제7장에서 저자는 손수 부화하고 키운 기러기새끼가 자신을 친어미로 생각해 평생 따르는 것을 보고 어린 시절의 결정적 시기에 이루어진 경험이 평생의 운명으로 따라다닌다고 주장한다. 그 각인은 유전적으로 미리 계획된 어떤 특정기제에 의한 것이라는 풀이다.

로렌츠 이론에 대한 예리한 비판서는 1953년 레이먼에 의해 제출됐다. 교원대 생물교육과 박시룡교수에 의하면, 레이먼은 경험, 특히 학습의 어떤 형태가 유전자에 의해 발달된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같은 관점은 로렌츠, 틴버겐 등 유럽의 비교행동학자들이 동물의 생득적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데 비해, 미국의 비교심리학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습득행동을 자극-반응도식으로 파악한 결과라는 것.

이로 인해 야기된 격렬한 논쟁과정과 결국은 두 견해가 화합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두 입장을 통일시키고 있는 책이 하인드의 「동물행동학」이다. 그밖에도 하인드는 다양한 학문들의 개별적 입장을 하나의 통합된 견해로 수렴하기 위한 집요한 작업을 벌임으로써 “제반 인접과학들과 동물행동학과의 연관성을 규명해 보려는 역작으로 평가된다”고 역자 장현갑(영남대 심리학)교수는 밝힌다. 하인드의 업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주요내용은 ‘각인’ 개념을 발전시킨 ‘母子관계성’. 원숭이 母子를 일시 분리시킨 결과 새끼원숭이의 발달초기의 사회적 결핍 상황이 성숙 후에 행동장애를 일으킨다는 자료를 제공한다.



“인간은 신체 어디엔가 지울 수 없는 저 옛날 하등의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을 어찌하라”(찰스 다윈). 이 책들은 현지출간 당시 격렬한 찬반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로렌츠의 또다른 저서 「공격성에 대하여」는, 프로이드가 생각하듯이 개체의 생명과 종을 보존하려는 모든 본능과 상반되는 자기파괴의 본능인 ‘공격성’을 다룬다. 공격적 행동은 “종을 보존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연선택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공격적인 개체만이 살아남아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바, 인간이 지구를 점령한 것은 그만큼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공격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진화의 방향이 바야흐로 자기파멸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저자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그것은 “웃음”이다. 그것만이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상에 더 오래 남아 있게 할 “계명”이라고 그는 믿는다.

### 동물 통해 살핀 인간행동·인간사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는 로렌츠의 「공격성에 대하여」를 때로는 비판하면서 “생존 기계”인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저자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생물학”을 살피면서, 유전자와 생존비결은 “냉혹한 이기주의”임을 주장한다. 유전자가 “제한된 형태”의 이타심을 발휘하는 경우마저 자신의 이기심을 최대로 달성하기 위해 “특수한” 환경에 처했을 때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극의 펭귄은 물개의 위협 때문에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기를 주저하며 서로를 밀어 넣으려 애쓴다. 부모의 자식돌보기라는 이타적 행동은 생식의 ‘기능’을 보존하려는 이기심의 일종이다. 그리고 그 이기주의의 단위는 종도 집단도 개체도 아닌 유전의 단위인 유전자라는 것이다. 로렌츠의 ‘집단선택론’이 타당하다면 인류나 국가나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내

부에서 반목은 없어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들어 로렌츠이론을 비판한다.

따라서 인간은 “털없는 원숭이”일 뿐이라고 모리스는 말한다. 그는 동물행동학의 관점에서 그간의 인류학과 정신의학의 인간 탐구는 문화적 오지인 실패한 표본이나 비정상적 변종을 임상적으로 연구했음을 비판한다. 주요 문명권의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절대다수의 표본인 호모 사피엔스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는 두뇌만이 아니라 성기도 가장 크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호모 사피엔스란 ‘생각하는 동성연애자’들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한 ‘반론서’가 ‘팬티를 입은 원숭이’이다. 인간은 원숭이이지만 팬티 정도는 입고 있다는 것. 에로티시즘이나 도덕이 팬티라는 요지이다.

한편 “인류문화를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특징지어야 하는가를 조명하는 새로운 접근”인 「사회생물학」은 “신다윈주의의 자연선택 이론을 동물행동의 적응성에 철저히 적용하고 특히 모든 행동에 대해 진화론적 검토와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보수적 진화학”의 면모를 보여준다. 저자는 사회성의 진화를 “생리학적인 관성의 구축에 이뤄지는 유전적 반응”으로 규정한다.

이병훈(전북대 생물교육과)교수는 이 책들에 대해 “우리 상황에서는 충격적이고 이단시될 만한 패러다임을 지니고 있지만 인간과 생명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해준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김석희씨는 “인간은 동물이라는 직설적 논리가 결코 인간모독으로 치닫지 않고 오히려 냉철한 인간성찰을 이끌어낸다”고 말한다.

— 김중식 기자